

# '국제 마인드스포츠 대회' 성공 가능성 크다

## 아침시평



김성  
광주대 초빙교수

지난 8월 3일 신안에서 제6회 전라남도 국수 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열려 바둑 애호가들의 눈길을 모았다. 특히 이 대회는 신안, 영암, 강진을 순회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세계프로최강전, 국제페어대회, 국내프로토너먼트 등 프로대회와 국제 청소년 바둑대축제 등 4가지가 함께 열려 그야말로 바둑전국(戰國) 시대를 방불케 했다.

### 전남, '바둑의 메카' 상징 굳혀가

전남에서 이렇게 화려한 바둑대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바둑의 최고 국수였던 김인 9단(강진), 조훈현 9단(영암), 이세돌 9단(신안)이 전남출신이고 현재 최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정환 9단도 부친이 전남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세돌 9단이 태어난 신안 비금도에는 이세돌기념관이 있고, 청소년 바둑대회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성적이 국제적인 바

둑대회 개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안군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배출한 고장을 내세워 100억원짜리 '황금 바둑판'을 제작,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면서 낭비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황금 조형물을 전시하는 이벤트는 일본의 자치단체에도 있었고, 가까운 합평군도 1999년 '황금박쥐'를 전시하여 아직까지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낭비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한다. 그러면 전남을 '바둑의 메카'로 상징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바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인드스포츠 전체를 아우르는 이벤트도 준비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마인드스포츠는 신체적 능력을 겨루는 경기와 달리 두뇌능력을 겨루기 때문에 '두뇌스포츠'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즈'라는 이름으로 바둑·체스·브리지·체커·중국어 장기를 겨루는 제 1회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4개 종목에 출전해 바둑에서 금 2개를 포함, 메달 9개를 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전남이 마인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남도내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이다. 전남의 동부는 여수세계엑스포와 순천만 정월달맞이제는 큰 이벤트가 있어 해마다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

다. 그러나 서부 지역은 대형 이벤트가 없다. 따라서 바둑대회를 마인드스포츠 대회로 확대하여 동서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게임의 확장이다. 장기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즐겨왔던 게임이기 때문에 추가 종목으로 큰 무리가 없다. 체스와 브리지, 체커 등 서양에서 대중화된 게임을 아시아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서양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관광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전남은 국민소득 면에서는 꼴찌 자치단체이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마구잡이로 공장을 들일 경우 소득은 향상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환경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행히 전남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고향'이다. 따라서 전통이나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무를 곳, 볼거리, 체험할 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려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관광인프라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인프라 투자도 불필요하다.

### 東西 균형발전·건전 게임 확장 '대안'

광주시와 전남도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에 바둑뿐만 아니라 두뇌를 써야 하는 다양한 종목을 아우르는 마인드스포츠 대회를 포함시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 전남도의 인구정책과 외국인 이민 수용

## 기고



김철성  
전남도농업기술원 주무관

쉬는 날이면 밀린 책들과 신문 등 읽을거리를 뒤적이다. 나는 전남도의 어느 변방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연 덕분에, 읽을거리에서 전남도의 당면 문제와 부합하는 글이나 문장이 발견되면 눈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게 된다. 해당되는 글이나 문장이 지극히 미흡하긴 해도 전남도가 처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지난 8월 22일자 지역 및 중앙 일간지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다. 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9천799명이 순유출 됐는데 이중 20대는 6천627명이나 된다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천697명이 감소했는데 이중 20대는 5천296명이다. 한때 전남도의 도정방침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었는데 이를 무색케 한다.

그렇지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전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처한 암울한 현실이다. 광주시만 봐도 올

상반기 인구유출 901명중 20대 청년은 무려 823명이나 됐다.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여러 원인 중 첫 번째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한다.

전남도는 그간 '인구 20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무려 100여개나 되는 인구 유입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하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이 현상은 올해까지 줄곧 6년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30년간의 인구 전망도 내놨는데 전남도는 1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빅카드중 하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닐까 싶다. 이전 대상은 모두 23개다. 지난해 9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밝혔다. 허나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구체적 계획이 없다. 국토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없다.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내보야 한다.

여기서 전남도의 인구 유입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통계청자료에서 전남도의 인구추이를 눈여겨보면 보면 지난해에는 1천882명이 유입됐고 올 상반기에는 1천4명이 유입됐다. 연령대는 거의 40~60대다. 이분들이 편안한 정착에 조짐을 맞춘 세부계획을 수립했

으면 한다. 두 번째는 필자가 '읽을거리'에서 전남도의 인구문제와 겹쳐졌던 부분들이다.

두 권의 책을 보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다. 먼저 '역사의 공간' (이진경)에서 "전지구화라는 말을 듣지 않기 힘들게 된 지금의 시대가 '이주의 시대'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 단일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그런 만큼 민족적 배타성이 강한 나라라고 해야 할 일본에서도 '천만 명의 이민자' 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나 독점 자본의 공식적 전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2008년 일본집권당이던 자민당의 보고서는 천만 이민자 시대를 전망하면서 '이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두 달 뒤 나온 정단련의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민족적 배타성' 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은)에서는 "저 출산이 큰 문제라고 한다. 국가가 돈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과연 돈이 본질일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가 없어지는 걸까. 인구가 줄면 외국의 이주민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그들의 자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까. 독일은 터키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독일인'이 되어 빈자리를 채운다. 어차피 히틀러가 강요했던 '순수한 독일인'은 없었다. 그렇게 배타적인 일본도 이제 내놓고 '이민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어쩔 수 없다."

제공하는 한편, 가·피해자 상태, 현장상황 등 객관적 위험성을 바탕으로 한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의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주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가정을 선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으로 다툼 없는 화목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근매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사설

##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미룰 일이 아니다

광주형일자리의 골간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돌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를 둘러싸고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도 이사회 구성 등 회사 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지역 사회 일부가 대표 이사 선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이사 추천 역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 총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 이사로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3선 국회의원과 산자위원장, 광주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륜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광주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현실화시킬 책임자"라고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취업처장 등 관계자들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지역의 청년

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 미래비전 정책이다"며 "지역 사회의 비판이 지나쳐 광주형일자리가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되면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 청년들의 취업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취업을 앞둔 지역의 청년 10여명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기성세대가 지엽적인 의견 충돌을 자제하고 큰 틀에서 협의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형일자리는 유례없는 새로운 실험이다. 어렵지만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광주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며 시민의 성원을 담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언급처럼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의 적극성 등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지엽적인 시비를 걸기에는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 크다. 그런 사업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에 다름없다.

## 최악 피했지만 태풍피해 복구·지원 신속하게

중형급 태풍 '링링'이 광주·전남 지역을 강타했지만 당초 우려보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중형급 태풍 '링링'은 지난 7일 오전 포폭 시속 1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며 초속 50m의 초강력 태풍으로 돌변했다. 신안 흑산도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54.4m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중 역대 4위였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 '볼라벤' (2012년 8월)보다 위력이 컸다.

이 정도 태풍이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에 비해 피해 정도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 배경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주요했기 때문이다. 시·도와 지자체가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한 것이 빛을 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태풍의 진로와 속도를 정확히 예측한 과학적 예보도 피해를 줄이는데 한몫을 했다.

그렇다고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일 오후 6시 기준 전남에선 농작물 쓰

러짐 피해 규모가 2천864ha(벼 2천814ha, 조사료 45ha, 콩 5ha)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남(1천ha), 강진(398ha), 나주(350ha), 보성(228ha) 등지에 피해가 집중되고 수확을 앞둔 과일 떨어지 피해(835ha)도 발생했다. 이밖에 해남·무안지역의 비닐하우스(1.6ha)와 신안 흑산도 등의 전복, 우럭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태풍 피해를 면한 덕분에 다음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맑은 날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최근 10일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수확을 앞둔 벼와 과일 등에 일조량이 절대 부족해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과일의 당도도 떨어진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태풍과 가을 장마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나서길 바란다. 지원과 복구가 늦어지면 농어가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해서 안 된다. 최우선적인 예산 배정으로 시름에 빠진 농어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 한국의 나 다르크?

'잔 다르크' (Jeanne d'Arc)는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다. 1337년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백년전쟁'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구국의 칼을 빼들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 왕위를 둘러싸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가, 귀족간에 벌어진 내전이자 국제전이였다.

왕위 계승권자인 샤를 왕세자는 출생과 관련한 의혹으로 대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영국군과 부르고뉴 동맹군에 밀려 프랑스 북부지역을 잃어버린 채 남부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백성들은 100년 넘게 이어진 그들의 전쟁에 의미도 없이 강제 동원돼 희생되고 땅은 피폐해졌다. 군대 또한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그때 나타난 이가 프랑스 동메미 지역 조각공예의 딸, 소녀 잔 다르크였다. 잔 다르크는 대천사 미카엘과 성(聖) 카타리나, 성 마르그리타로부터 발루아 왕가의 샤를 왕세자를 도와 프랑스를 침범한 잉글랜드군(軍)과 그들을 돕는 부르고뉴를 몰아내고 프랑스를 구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잔 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에게 포위돼 있던 오를레앙 지역으로 병사를 몰고 가 영국군을 물리치고 샤를 왕세자의 대관식까지 치르게 했다.

일본의 텔레비전사시가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잔 다르크에 비유한 '나 다르크'로 거론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그를 '조국 비판의 선봉에 선 인물'로 비주목하게 다뤘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나 원내대표를 '너무 아름다운 의인' 운운하며 '나 다르크'라고 추켜올린 반면, 조 후보자는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소개하며 '양파'라고 깎아내렸다.

일본 방송이 남의 나라 정국 상황을 두고 떠벌린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결례다. 극심한 한·일갈등 속에 협한, 반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내용은 더욱 그렇다. 거기에 더해 조 후보는 물론 정권 비판의 선봉에 선 나 원내대표를 띄우고 나섰다니 기가 찬다.

훗날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잔 다르크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오랜 전쟁에 지친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한때 희망이기도 했다. 조선 의인 시절, 그들의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했던 옛 의인(?)을 고려한다 해도 그를 잔 다르크에 비한다는 건 가당찮은 일이다. 김양태주필 kymtd8617@srb.co.kr

## 발언대

### 가정폭력 없는 명절을 기대한다

가정폭력은 재범우려 가정을 따로 관리할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종 하나이다. 비록 검거 인원이 늘면서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도 집안일로 치부해버리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신고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고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 속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살, 살인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에서는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가정폭력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112신고로 접수되는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단계별 대응모델 준수 철저 및 신속한 출동과 피해자에게 보호기관 등 정보를 충분히

<b>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b>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b>회장 조덕선</b>	<b>시장 발행·편집인 장인근</b>	<b>주필 김영태</b>	<b>편집국장 강동준</b>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체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사회부 (062)606-7722 서울지사 (02)313-1881
편집부 (062)606-7750 문화체육부 (062)606-7737	정치부 (062)606-7730 사천부 (062)606-7762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지역사회부 (062)606-7723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독자제보 062-606-7722·FAX 062-606-8765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